

나의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오병이여의 기적을 체험하며

박진숙(15교구)

3년 전 장풍만 안들었을 뿐이지 거렁뱅이였던 우리 모자, 그러나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여학교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중도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어렸을때 장애가 되었다면 고통이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암울했던 사춘기 방황과 좌절은 무뎌진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음이 적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수화를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사방이 일어나면 따라다니고 기도시간에도 그저 열사방 행동만 따라다니노니 어떤 때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또 방황의 길로 갔었지만 주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켜 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5년 8월부터 복지관에서 입소해서 저번 전도음악회와 과장님하셨던 지금은 에마다부 지도이신 청도남원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보내 주시고 위로와 격려 편지 보내 주셨습니다. 꼭 교회 한 번 오라고 거듭 부탁하시니 먼 곳이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어제는 주일 아들을 업고 물어 물어 충현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따라서 들어오니 들어오니 아저씨 그대도 마음이 평안한지요. 무엇보다도 에마다부 가족들이 너무도 따뜻하게 반겨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복지관에서 쓸쓸하게 지냈지만 주일만 손뼉이 기다려 주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수화를 조금씩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그토록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는데 일반매체에 참석해서 자막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보니 충현교회로 나를 불러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훑볼 같은 나의 어린 신앙이 굳건하게 된 것에는 에마다부 가족들의 기도과 사랑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민, 교역자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과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복지관에 있을 때였는데 휴지 부업으로 아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했었는 데 적은 금액이었던 정성실 일조를 드렸습니다. 그 즈음에 아들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리적에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구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낫다는 행복한 오연인 에마다부님께서는 복지관으로 찾아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많은 구제헌금을 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만전을 오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어제는 감사기도박에 드릴 게 있었습니다.

복지관 회소를 맡고있고 바쁘고 함께 살아가 수 없다 하고 사들을 도와주고 보살 처치해 주셨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해주고 일주일간 충현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련한 자의 놀림과 굴림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한은 안전전대여 부리라 하신다." (시 125)라는 말씀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저 아들을 붙잡고서 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으니 앞으로도 아들문제는 모두다 맡겨 드리겠다 고 다짐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원 댁안을 걸으며 장래에는 교회에서 펄로쓰는 자 되고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아들을 안보내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좋겠다 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애독함을 헤아리시고 공장 기술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무인도에서 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생활은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복만 달라고 기도드린 것이 최종해서 묘안을 썼습니다. 첫번째 가급적 실업조 금때까지 드릴 것. 두번째 주일을 지각하지말 것. 이 두 가지를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주 지각할 일이 생겨서 큰일이었습니다. 한민은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동네교회에 가서 헌금만 드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주일을 안지킨 것이 걸려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갑이 돌아온 것을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때면 위도 안돌아보고 뛰어 가곤 하던 아들이 어닐날 부터인가 슈퍼 앞에서 파자를 사 먹자면 이가겠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펐이 될 것 같아 그냥 가버리려 드려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거의 한달을 지나 회사로 교구 집사님들이 면회를 오셔서 교과까지도 도착한뒤에서 이제 왔다고 하시며 결혼하게 만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 다. 집사님께서 앞으로 주일에는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사님 차를 타고 수파 앞을 우박 지나가도록 해주신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한달 전에 목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2월 25일 입원을 해서 26일 아침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심장이 정지나면 달라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의 두려움은 고통이었습니다. 3월 1일은 성전성인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못박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성전에 참여했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시려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주님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길에 내 심장을 정상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러고 주안한 목의 아물침을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시고 깨끗이 주실 것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밤낮으로 찬송을 수심만큼 읽어요. 낮에는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속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에마다부 전도사님과 사도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내 어찌 으리요. 충현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수술이 확정되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 심방오셔서 말씀과 기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빠른 회복을 주셨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에도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체험했습니다.

어찌 이 일 뿐이었습니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리 주신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인명으로 기쁨을 만날 때를 주신 교구 전도사님과 교구 식구들의 사랑의 헌금과 선물, 충현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넘칩니다. 예수님을 담은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 여기가 천국이 아닌지요.

이제는 평범한 가정 집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냅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구역에매도 제대로 못갔는데 이제는 수요예배,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여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이야기



복지관의 첫 열매

김홍익(남, 27세)은 이제 취업한 지 약 6개월 된 사회 초년생이다.

홍익씨는 95년 6월에 복지관에 입소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으며 안양에서 복지관까지 혼자 통학해왔다.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지만 약 2년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 없이 매우 성실하게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직업 훈련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 훈련생이었다.

그는 요즘 복지관이 아닌 구로3공단에 위치한 그린힐타(주) 회사로 출근을 한다.

그린힐타(주)는 정수기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연간 약 15~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곳에서 홍익씨는 기계를 조작하여 필터를 닦는 일부터 포장 조립 및 운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수기 필터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 일반인들보다는 속도가 약간 더딘 하지만 정확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늘 웃는 얼굴로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익씨는 취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년 9월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그린 힐타(주) 업체를 복지관 직업재활 교사들이 방문, 홍익씨의 취업을 의뢰하였고 홍익씨는 이곳에서 3개월 동안의 실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실습을 나가기 전 지도 교사가 먼저 업체에 나가 작업에 대해 숙지한 뒤 홍익씨에게 작업 지도를 했다. 지도 교사가 홍익씨에게 알맞은 표현과 교육 방법을 통해 작업에 대해 반복 훈련을 시키고 난 뒤 실습을 시작하였다.

실습을 하고 있는 기간에도 지도 교사는 자주 업체를 방문하여 홍익씨를 관찰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계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홍익씨의 경우, 업체쪽에서는 언어 장애 문제와 산재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눈치빠르다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늘 30분 일찍 나와 작업을 준비하는 등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보고 홍익씨를 채용하게 되었다.

또한 실습 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업체쪽에서 홍익씨의 성실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홍익씨는 50만원월의 임금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 꺼려하기도 하고,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답답해 하기도 했었던 주변 동료들도 이제는 홍익씨의 성실함과 환기 웃는 모습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지내게 되었다.

홍익씨 어머니는 홍익씨의 취업을 몹시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교육 관련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애가 복지관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지 몰라요. 그리고 취업 후 홍익씨의 사회성이 발달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랄 뿐이지."

오늘도 홍익씨는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신자와 헌신자(2)

오 신실하신 주

최창하(청년1부 간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렵겠네 그 사랑 변함없 날 지 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이 찬송가는 내가 신앙을 갖게 된 후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이다. 구약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과 고통을 맞을 때면 으레 하나님을 갈급히 찾았고 하나님은 은혜로 평화로울 때면 교만해져 타락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유년 주일학교부터였고 충현교회로 오게 된 것은 중학교를 막 졸업할 때였다. 충현교회에 오게 되면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언제나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신실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짝사랑이었다. 아주 예민하던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된 아버지 사업의 갑작스런 부도는 내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직 어렸던 내게는 암울하고 좌절스런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한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만큼 계속되었다. 감창인 원로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었다. 적어도 그때 그 말씀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 것 같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

4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나누는 새신자를 통해
첫사랑을 삼가하며 새신자는 헌신자를 통해
좋은 길잡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좀더 성장하고 불순종의 자유를 더욱 크게 느낄 때마다 흔들리기 쉬운 내 어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다. 대학부를 거처며 NMC로 섬기게 하고, 임원과 GBS로장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부족하고 낙한 나를 알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은 군대에서도 계속되었다. 입대 전 기도하고 결심했던 것이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자대배치 후 힘없는 출범의 6개월여 동안 주일예배 시간에는 보조근무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군무를 바꿔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포대 군중병으로 섬기게 되어 그곳에서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입기도 했다.

나는 지금 또다시 청년1부에서 섬기며 만났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른하나의 삶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동안, 일년 365일 동안 내내 보여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이것은 내가 눈을 흘리며 감동스럽게 봤던 어떤 영화 속에 서의 짧은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평생도록 사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애절하고 안타깝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 같은 것이었다.

이제 내전 같은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늘 고난처럼 기쁘고 타락하기 쉽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길 소망한다. 너무나 외롭게 짝사랑만 해오던 하나님과 이제는 더불어 사랑하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해본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헌 가족 여러분.

저는 74동기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간 동기는 초등학교때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행사가 있을 때 동네 친구들과 같이 가서 사랑이나 파자 등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어렸고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생각에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후 고등학교 때에는 제 주위 친구들이 거의 크리스천이어서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 작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편지 쓰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기도하면서 올렸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에는 왜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이 다 싫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부당스럽고 귀찮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고 그 마흔 친구들인지 모릅니다.

그후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 다. 회사의 사람들이 싫어서 너무나 다니기 싫고 괴로웠던 시간들. 또 작년에는 직장과 대입 준비를 함께 병행하던 저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회사를 떠날라는 이름으로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부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지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친절함과 여러 목사님 및 전도사님의 따뜻한 인도로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쁩니다.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요즘같이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잘 것 없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충현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윤 진(60동기)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좀더 사람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DFD라는 귀한 가르침의 시간에 제 자신의 실재를 알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나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여기는 많은 일과 즐거움보다도 더 비굴되지 않는 비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참 기쁨을 알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지만 충현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에 모두 돌리우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마음, 교제와 가르침을 통한 도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실, 주성적이고 앞도 모를듯 말한 채 치우쳤던 겉멋기만 한 종교적 태도, 하나님께 돌리움을 벗고 허물을 벗어 가는 아픔과 고인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내일을 기뻐하게 하는 과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많은 통로와 기회를 열어 놓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DFD공부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삶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드러내는 참 기쁜 삶을 누리게 하고자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인식하지 않게 합니다. 때때로 예전 모습이 나올 때에도 곧 부끄러움을 알고 새로운 출발을 매일 다짐하게 됩니다.

DFD의 중요성을 알고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태할 때에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속다 인정하시는 그날에 관한 얼굴이 되길 그 모습을 그리보며 리더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어주소서.

-아멘-

지체들 소식

▶ 유치부 / 봄비가 내렸던 부활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있네" 유치부 찬양대의 리듬 합주 소리에 맞추어 부활절 찬양이 소리 높여 울려퍼졌다. '무덤이 정말 있었을까?' 의심하는 눈빛보다 '이제'로 용감해지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고백을 이 하얀 도화지에 여러 색깔의 십자가, 예수님, 빈 무덤, 천사 등으로 옮겨졌습니 다.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부활절 계란을 들고 행복한 걸음으로 유치부실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주의 사랑,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 중등2부 / 봄비 치고는 제법 껌은 빗줄기였으나 우리는 예정대로 과별로 나누어 준비된 전도용 책갈피와 사탕을 들고 교회를 나섰다. 우리 소망과 밭은 곳은 르네상스호텔 주변이었다. 목격자에 도착해 보니 출발할 때보다 빗줄기는 가늘어져 있었지만 날씨 탓인지 중학생은 고사하고 어린이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만치에 누구 하나 나타났다가 철이 가보면 우리 교사들이나 학생들! 우리는 과연 내리 예상치가 있는 상록회관 부근으로 강소를 옮겼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으나 내 태도가 문제였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며 준비했는데 어쩔지 쑥스럽고 어색하기만 했다. 아이들 눈에도 다신간 있는 교사가 측은했는지 한마디씩 거든다. "선생님,

둘이 같이 가는 사람보다 혼자 가는 사람이 더 잘 받아요." "선생님,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왔을텐데 모두 모여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흠뻑 묻어나고 있었다. 그 능력이 부족하지만 수고했다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나성애 통신원)

▶ 중등3부 /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 일을 맞이하여 반별 계란 콘테스트가 열렸다. 꽃, 어미닭, 야랑병아리 등으로 정성껏 장식된 각 반의 특색있는 바구니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분반공부 후에는 이준경 강도사님과 교사, 만리회와 소그룹 학생들 23명이 세 곡동에 위치한 참빛장애인선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한 쌀과 의류, 계란을 전달하고 함께 예배드렸다. 해마다 돌아오는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가볍기만 했다. (송미경 통신원)

▶ 장년1부 / 오늘 집회 시에 교육관 407호에서 IMF 시대, 40대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박종학 선생님(정신과 전문의)을 강사로 하여 특강을 실시

한다.

▶ 12교구 /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기념 집회를 교구모임 시간에 가졌다. 특히 여성도들로 조직된 12교구 찬양대의 은혜스러운 찬양과 박철구 집사가 과시한 '부활의 아침'을 김일성 집사가 낭독하여 교구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떡을 떼며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성도의 교회를 가졌다. 한편 14일(화)에는 교구 협의회를 갖고 교구 연합회 전도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박철구 통신원)

▶ 15교구 / 고난주간 둘째날 루디아 회원들과 함께 충현기도로 향했다. 갯재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시형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심! 주님 음성! 귀에 생생한 것 같다 이대로 잠에 들어 있을 수가 없었다. 오날따라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바빠준다. 나 때문에 나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난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라 말인가? 그동안 본의 아니게 말거친 루디아전도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부끄럽고 창당하여 이 거추장스런 짐을 벗지 못해 얼마나 안달을 했던가. 난 순종 주님께 죄스럽고 부끄럽고 염치없이 얼굴조차 숨 수가 없었다. 회원들과 기도회를 갖는 동안에도 어떤 기도도 가슴이 벅차오는지. 아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부르짖었다. "주님

괴송합니다. 괴송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관계로 늘 실수 투성이지만 그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으로 다하려 다짐해 본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며 계획한 일들에 아직 손을 대보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 보리라. 남은 생애 주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15교구 루디아전도회 회장 임정숙)

사람의 하루 동작은 크게 없고, 서고, 걷고, 눕고의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앉는 자세에서는 먹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서는 자세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출발점이고, 걷는 동작은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며, 눕는 것은 쉬는 동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동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주아로 목상하는 특권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신 성도의 부활절을 맞아 15교구 모임에서는 부활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주인으로 사시는 진정 한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 전 교구 식구들이 통성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한숙경 통신원)

탐방 - 도서관

경건한 목상을 위한 안식처



선

교관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서관은 신배 신앙인들의 믿음과 문화 유산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교역자와 교인들의 신앙 향상과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1973년에 개관하였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리 교회 도서관의 모든 업무가 담당하고 계신 손정숙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거의 모든 도서관이 오른쪽 서고를 가득 메우고 있고, 왼쪽에는 책을 둘러가며 각종 주석서, 사전류, 참고서적 등 이 빼곡히 꽂혀 있으며, 책을 읽거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열람실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약 2만 장사이다. 기독교 관련 서적과 일반 서적, 신문 등이 있다. 신앙 도서와 일반 도서의 비율은 8대 2정도이고, 양서는 3천권, 나머지는 모두 동서이다. 도서 관리는 모두 컴퓨터로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으려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대출증이 있어야 한다. 도서 대출증 발급 신청서에 교구 목사님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도서관에 제출하면 대출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도서가 대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도서는 주석서, 사전류, 참고 도서류 등이다. 이 도서를 안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면 된다.

열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며 주일은 2부에 배마친 후부터 저녁예배 전까지이다.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을 한다.

평일에는 설교에 도움을 받기 위해 교역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일에는 신앙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 성도들이나 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대출이 가능한 책수와 기간은 교역자는 5권에 14일간이며, 일반 교인은 3권에 7일간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에 1주일정도도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책당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책을 제대로 반납해야 한다는 약간의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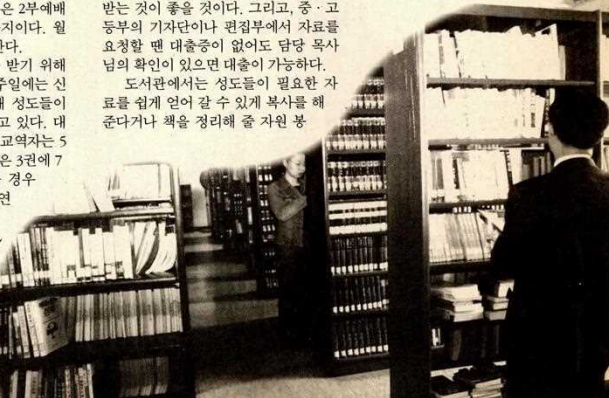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성도는 충현교회 등록 교인으로 만 18세(대학부) 이상의 성인이다. 그 이유는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나가지 좋지 않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부의 기가지단이나 편집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대출증이 없어도 담당 목사님의 확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는 성도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갈 수 있게 복사를 해준다거나 책을 정리해 줄 자원 봉

사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책에 관심이 많고 봉사하기 위한 마음이 열려 있는 충현교회 식구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교회소식

- 알림
1. 장학현급 안내 / 26일(다음 주) 1, II, III, IV, V부세에서 드립니다. 기도과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2.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는 것은 26일(다음 주)까지 구교담당 구역역사에게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5월 3일(주일) 15:00-16:50, 5월 10일(주일) 15:00-15:50
* 본당 5월 10일(주일) 16:00-16:50, 각 구역별 장소
* 교육장교 교육관 314호(학습), 307호(세례), 교육관 310호(유아세례)
* 학습, 세례식 5월 17일(주일) 창영예배시, 본당
* 유아세례식 5월 17일(주일) 15:00, 갈릴리움
3.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26일(다음 주) 구교모임 시 각 구교모임 장소에 있습니다.
4. 지난 주부터는 금요일이식 구교별 복자 컷말을 새우기 알기 바랍니다. 알리지부터 채워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1. 전선 화요일새벽기도회 / 21일(화) 새벽기도, 교육관 109호
2. 교육원교회 화요일 / 5월 15:30, 국제회의실
3. 칠일인교회 - 군전교회 - 교전교회
주일기도회 / 매주일 15:30, 사랑부실
4. 칠일인교회 목요일기도회 / 23일(목) 새벽기도, 사랑부실
5. 교육원교회 화요일 / 21일(화) 1부세후, 교육관 207호
6. 안수집사회 월요일새벽기도회 성경공부 / 20일(일)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7. 전교회 제3차 화요일 / 21일(화) 1부세후, 사랑부실
● 남나선교회
1. 바 홀 2 / 5월 구교모임 후, 아련홀
2. 바 홀 2 / 5월 15:00, 교육관 314호
3. 바 홀 4 / 25일(토) 15:00, 창세기산상 예배
4. 바 홀 5 / 21일(화) 19:00, 바대강집(555-0260)
5. 바 홀 9 / 26일(주일)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6. 바 홀 11 / 5월 구교모임 후, 영아부실

- 7. 바 홀 13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0호
8. 바 홀 16 / 5월 구교모임 후, 영아부실
9. 바 홀 17 / 5월 15:00, 교육관 307호
10. 베드로 2 / 25일(토) 14:00, 교회동문 집합(아울렛)
11. 베드로 3 / 25일(토) 18:00, 신종기 집사 직방(315-0061)
12. 베드로 5 / 25일(토) 19:30, 김중훈 집사차
13. 베드로 6 / 25일(토) 19:30, 문영진 회장(403-7155)
14. 베드로 7 / 25일(토) 15:00, 박승준 집사(441-1138)
15. 베드로 12 / 5월 15:00, 교육관 412호
16. 베드로 17 / 5월 18:00, 박규원 집사(082-705-5777)
17. 오 한14 / 5월 19:00, 이종욱 집사차(831-4988)
18. 한 나13 / 5월 구교모임 후, 사랑부실
19. 예스더 1 / 5월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0. 예스더 2 / 5월 구교모임 후, 아련홀
21. 예스더 3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22. 예스더 5 / 5월 구교모임 후, 복자인 지하2층
23. 예스더 7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5호
24. 예스더 9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25. 예스더10 / 5월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6. 예스더11 / 5월 구교모임 후, 메추라기울
27. 예스더12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28. 예스더13 / 5월 구교모임 후, 사랑부실
29. 예스더14 / 5월 구교모임 후, 갈릴리움
30. 예스더15 / 5월 구교모임 후, 베다니홀
31. 예스더16 / 5월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2. 예스더17 / 5월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3. 루디아 2 / 20일(일) 11:00, 갈릴리움
34. 루디아 5 / 21일(일) 11:00, 새가문부 교사실
35. 루디아 7 / 21일(일) 11:00, 이연진 집사차
36. 루디아 9 / 21일(일) 11:00, 향관전교회
37. 루디아10 / 21일(일) 11:00, 강경숙 집사(0565-9552)
38. 루디아11 / 21일(일) 11:00, 안숙영 집사 가게
39. 루디아12 / 5월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4호
40. 루디아17 / 21일(일) 11:00, 향관전교회
41. 마리아 2 / 21일(일) 10:30, 김장희 집사(569-7038)
42. 마리아 5 / 21일(일) 10:30, 김반복
43. 마리아 6 / 21일(일) 11:00, 유익부실
44. 마리아 7 / 5월 10:30, 유익부실

- 45. 마리아 9 / 21일(화) 점심 후, 기도한 영성훈련
46. 마리아11 / 5월 12:30, 유익부실
47. 마리아13 / 5월 10:30, 유익부실, 김반복
● 결혼
1. 전문수(군)영애(배) 집사, 이현자 권사의 아들, 제19교구와 허주영(영)애(배) 성도, 김순자 성도의 딸, 제19교구 / 21일(화) 12:00 복자찬
2. 방승국(방)정자(배) 집사, 강승준 집사의 아들, 제19교구와 최이정자(배)준복 씨, 김정희 씨의 딸, 제19교구 / 21일(화) 13:00 갈릴리움
3. 서우석(군)정자(배) 씨, 심수진 씨의 아들, 제19교구와 박희경(방)정자(배) 성도, 장숙은 권사의 딸, 제17교구 / 23일(화) 12:00 갈릴리움
4. 이광동(군)이정자(배) 씨, 이종원 집사의 아들, 제19교구와 권경희(방)정자(배) 씨, 방필혜 성도의 딸 / 24일(금) 13:00 갈릴리움
5. 이광진(군)이정자(배) 집사, 안숙은 권사의 아들, 제19교구와 박희경(방)정자(배) 성도, 장숙은 권사의 딸, 제19교구 / 25일(토) 13:00 복자찬
6. 이광진(군)이정자(배) 집사, 안숙은 권사의 아들, 제19교구와 박희경(방)정자(배) 성도, 장숙은 권사의 딸, 제19교구 / 25일(토) 13:00 복자찬
7. 정창근(군)정자(배) 성도, 안병화 씨의 아들, 제19교구와 정창근(군)정자(배) 성도, 안병화 씨의 아들, 제19교구 / 25일(토) 15:00 선광교회
● 별세
1. 김득중 장로(조계원) 전사 사위, 김동희 집사, 김병자 집사 부친, 박정식 장로 장남, 이선자 집사 사부, 제19교구 중재(구역) / 11일 밤세, 13일 장례
2. 최희관 집사(조계원) 전사 사위, 오정자 권사 남편, 제13교구 / 14일 밤세, 16일 장례
● 주일 및 화요일에 변경
1. 박인기 전도사 / 강남구 역삼동 658-21 101호, 전화: 508-7509
2. 이광동 안수집사, 영정자 집사 / 강남구 역삼동 701-23 새마을빌라 303호, 전화: 552-3712
3. 최희관 집사(조계원) 전사 사위, 오정자 권사 남편, 제13교구 / 14일 밤세, 16일 장례

금주의기도제목

- 1.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근검절약의 내림생활을 실천하며, 주님의 장래일을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장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주안장공부, 구교별 영성훈련, 남산도 구역모임, 구역장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4. 각 예배당에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양하며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5.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6. 전교회도와 금요일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사게 하소서.
7.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원로목사

■ 위임목사

■ 담임목사

■ 부목사

■ 협동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원로목사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733	김수년	2	장경자(2)		742	김우병	12	소망부		751	박영숙	13	한나	조영희(13)
734	나승식	2	청년2부		743	오정일	16	청년2부	하상구(13)	752	이진홍	13	소망부	조영희(13)
735	이지현	2	청년2부		744	이강식	19	청년2부		753	최진영	19	대학부	하혜연(11)
736	박영숙	3	마을	유경혜(5)	745	정현호	19	청년2부		754	이경희	19	대학부	
737	김희영	19	대학부	김지은(19)	746	정형철	19	청년2부		755	김해수	4	소망부	
738	김용남	4	청년2부	박재인(15)	747	이원준	19	청년2부		756	최경자	19	청년1부	
739	김정미	4	청년2부	박재인(15)	748	노 아	19	청년1부		757	김우진	19	중등부	
740	정정숙	8	소망부		749	정수진	19	청년1부		758	기우별	12	소망	
741	임길선	8	고등부		750	조성환	19	고등부	임정민(13)					

※천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전도회 부활절 전도 집회

경찰전도회에서는 지난 4월 8일(수) 낮 12시 경찰청교회에서 부활절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강재 장로의 기도와 조칠수 목사의 고전 15:1-20을 본문으로 한 '예수 다시 사셨네!'의 말씀과 경찰전도회 여성중장단의 찬양으로 전도 집회를 은혜스럽게 드렸으며 믿지 않은 전·의경들이 결신하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 경찰청내에는 경찰관, 전·의경 등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관서를 지휘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상급 관직이다. 경찰전도회는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전의경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경찰의 구원을 위하여 복신자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계속 힘쓰고 있다.



고 있으며 천국교회 성도 가운데 전·현직 경찰공무원 및 가족들도 경찰전도회에 모두 가입하여 기도 후원이자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552-8200(교한 325)

4월 26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 장기범, 오르간/ 김윤경)
(찬양곡)
* 주 앞에 나아와 *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로우다
* 권편이 연주
- ◆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 김철호, 오르간/ 조희영)
(찬양곡)
* 장울같이 흐르는 기쁨(전 169장) * 내 맘이 낙심되니(전 406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전 219장) * 내가 왕 되리라는 예수(전 86장)
- ◆ 4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 이수현, 오르간/ 김남규)
(찬양곡)
* 나의 주 나의 친구 * 창피하지는 김
* 부드러운 주의 음성 * 감람산 길 닦았으나
* 형제의 친교
- ◆ 5부예배
청년1부 찬양단(지도/ 고미리, 피아노/ 김경아)
(찬양곡)
* 반 들은 바른 풀이(전 172장) * 아담과 노한단
* 어직신 목자 * 시편 23편

◆교회록◆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전도하는 조용한 발길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 금은 IMF예요. 전도할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얻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갑시다.” “교회에 가면 일러져 뭐요?” “지금 현금이 줄고 있어요. 전도도 선교도 좀 더 절약해야겠어 해가 됩니다!” 영적인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를 계속한 이후로,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IMF 초기에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의식이 순수한 신앙 회복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 성도들의 마음조차 크게 위축시킨 나머지 최소한의 ‘교회생활’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시간도 물전도도 쓰라고 하지 않는다. 소위 나쁜 의미의 ‘절약형 신앙생활’이 만연해가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즈음에 교회들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오히려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중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교구별 전도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일과 교회학교들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전도운동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전도위원회는 각 교구의 회중을 얻어서 속 하반부에 실시할 교구별 새신자 초청잔치를 정점으로 하는 연중 전도계획을 수립했다. 이 전도계획의 핵심은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자”는 것이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의 핵심 골격은 요한, 베드로, 바울전도회(이성 남성도), 그리고 마리아, 루디아, 에스다, 한 나전도회(이성 여성도) 등 총 7개의 전도회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도회의 활동은 전도보다는 주로 교제에 치중했

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전도위원회는 지금의 전도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전도회가 전도하는 모임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을 계획이다. 특별히 대내적으로는 낙심자와 장기결석자, 미온신자들을 헌신적인 신자의 대열로 인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노방전도, 호구방문전도, 봉사활동을 통한 간접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는 4월초부터 시작하여 있는 양 찾기, 학교전도, 태신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 새친구 초청잔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전도행사를 기획, 실행해나가는 중이다. 특히 대학부는 5월 3일을 영적 대각성을 위한 전도주일로 정하고 4월 한달 동안 단계적인 준비를 진행시키나가고 있으며, 청년부는 5월 19일 명동노방전도와 16개팀 200여명의 농어촌 낙도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행사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값진한 이 시대는 그것이 새로운 일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충현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발길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환경에 예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로 다시 서야 하겠다.

98년도 제3차 성찬식

5월 3일 1-5부예배시

다음 주일 1-5부예배시에는 98년도 제3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이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98년도 제2차 학습 세례식 5월 17일 실시

5월 3, 10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5월 17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3일 (주일)	1교시 15:00-15:50	가독교개요 (김진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관? (김병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5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5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적벽 찬양예배, 문답)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교역자 수련회

4월 27-29일 충현기도원
28, 29일 각종 강의 및 훈련 휴강

교역자 전원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28일과 29일에 있는 주일성경공부와 지역장 및 구역장영성훈련, 교구영성훈련은 휴강이다. 29일(수) 저녁 남성도구역장영성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교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또한 교역자 전원이 영적으로 더욱 하나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요청된다.

소석장학회 후원자 및 전액장학생 후보자 기도회

4월 30일(목) 오후 6시 갈릴리홀

장학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소석일반장학생 1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로, 그 중 20명을 소석전액장학생 후보자로 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오후 6시에 갈릴리홀에서 소석장학회 후원자들이 후보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다.

장학위원회는 앞으로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철야기도회, 공동체 훈련 및 농어촌전도 및 단기선교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장 및 지도교역자의 평가와 평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수혜자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충현의 미래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될 젊은이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후원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겠다.

교역자 인사

그동안 9교구 지도로 사역하던 한국수 목사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신현평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함에 따라 4월 25일부로 사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9교구 지도 후임으로는 정해성 목사(사전, 1958년 1월 24일생)가 부임했다. 정목사는 대신대 신학과 및 충신대 신대원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동안 동산교회, 대성교회, 왕도교회 등에서 시무해왔다.



제14회 군종목사후보생 수련회 지난 21일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김성관 위원장은 시도행정 10장 34-43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 복음을 강하게 선포했다. 교단을 초월하여 모든 이변 모임을 통해서 확신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이 군복음화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벨렌찬양대원 모집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의 벨렌찬양대원으로 성가집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상 : 만 19-39세
· 모집기간 : 4월 30일(목)까지
· 문의 : 찬양위원회(교한 205)

모압에 대한 경고 (2)

(이사야 16:1-14)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속히 준비하고, 속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창진 목사

이 사야 15-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16장에서는 15장에서 경고된 심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모압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바치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내가 잘 나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매사를 깊이 생각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모락을 베를 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사숙고하라, 즉 깊이 생각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양심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심하여 말을 하고 일을 하면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옳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를 따라 가면 삽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충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 모압이 당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는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2절)

"아르는"은 모압의 국경을 이루는 강입니다. 아르는 나무에서 배를 타고 건너 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끼'가 되었다는 말은 본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세력이 좋은 사람들을 세척령 휘둘러 날아가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백성은 날 줄 모르는 어린 새 새끼처럼 권세도 재물도 없어도 도망가 지 못하고 한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약한 자들과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편의 날이 닷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들을 배반하지 말고 보호해 주면 모압이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어부지르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에 아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들을 버리지 말고 보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 성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두 사람을 첩투시켰습니다. 두 정찰병은 생명을 걸고 예리고 성에 잠입하여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이 보낸 정찰병인데 우리를 좀 숨겨달라" 이상합니다. 돈만 아는 줄 알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인 정찰병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제가 듣건대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네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모험입니다. 발각되면 두 사람은 물론 라합의 식자들까지 모두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이고 예리고의 백성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죄인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리라'며 의인을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라합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에 라합과 그 모든 친척들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육신은 살고 영혼은 천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4) 유다에게 복종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랫동안 쫓겨난 채로 도색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떼처럼 자기 망명지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의 보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영광스럽고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사는 길은 유다에게 복종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2. 이사야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 모압이 멸망할 원인이 되는 교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사상이신지라 죄를 범하는 모압일지라도 멸망시킬 것으로 알고서 하나님께의 종을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다. 그런데도 모압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모압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까지 업신여길 만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잔인합니다. 모압은 교만하여 과장선전을 합니다. 조금 잘한 것이 있으면 크게 자랑했고 선전을 합니다. 남이 잘한 것을 제가 잘한 것처럼 선전하고 자신이 못한 것은 남이 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모압이 왜 교만했습니까? 첫째로, 곡식의 추수가 풍성했습니다. 팔을 심어도, 콩을 심어도, 벼를 심어도 수확이 풍성하여 배가 불렀습니다. 둘째로, 모압은 은금보배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셋째로, 지식수준이 높아 교만했습니다. 넷째로, 미신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음란으로 타락하여 날마다 포도주 술을 만들어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흥청거리며 갖은 악한 죄를 마음놓고 저였습니다.

(2) 3년내에 당할 모압의 형상과 혼란을 보여 줍니다

① 영화롭던 모압이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한이 선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준비하고 회개하면 삽니다. 노아시대 홍수는 120년으로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니느네는 40일로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오늘 밤 밝기 전에"(창 19:23)라고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 날 밤에"(단 5:26, 30) 망하리라 고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3년내에... 능욕을 당할지라'라는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그 정당한 날과 시를 모릅니다. 둘째로, 인간은 기한을 모르니까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한을 모르니까 죄보따리를 숨겨 두지 말고, 기한을 모르니까 재빨리 예수님을 마중나가기 위하여 기를 준비를 하고, 기한을 모르니까 죽기 전에 맘을 돌려 제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사야 전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3년내에 너희가 망하리라'고 하나님의 기한을 선포해 주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년내에 멸망한다고 했지만 돈만 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내어 놓으려니 부끄러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② 소용없는 자들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년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압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몇 사람이 남는 데 소용없는 자들만 남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내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6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잘 나서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을 바치고 선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화목하면서 감사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보금자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는 자는 마치 보금자리가 깨지는 날에 이미 세는 날에 도망가고 새끼 새는 땅에 팥겨쳐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과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국경에서 이미 세는 도망가고 새끼 새는 밟힐 때에 돌질도 권세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환난을 만난 의인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사숙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교만한 자는 망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돈, 권력,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면 마침내 망하고 삽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의를 순히 행하여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때를 조차하여 발표하는 원인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기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속히 준비하고, 속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ㄴ



김성관 목사

여호와와 밤

(출애굽기 12:42)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그분의 손과 발을 찢은 못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골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뻐하였듯이 새 언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특정한 시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밤'의 경우, 그것이 어둠으로 가득 찬 시간이라는 느낌으로 인해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반면 밤은 빛이 없는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아침부터 한 밤까지 매일매일 끊임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밤, 곧 유월절의 밤은 실로 여호와와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밤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기억하고 숙고해야 할 특별한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다니엘을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미리 내리신 경고를 통한 시한 채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은 분주하게 움직이던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늦거나 낮은 곳이라도, 또 어떠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눈은 그 곳에, 그 시간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그 밤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아홉 가지의 고풍스런 재앙 후에 찾아온 열번째 재앙은 창으로 밋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밤에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통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경고

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 밤에 두 번의 기회나 예외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속수무책이었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때아픈 비탄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

여호와와 밤이 지나간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을 통해 그들이 지닌 온갖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애굽인들은 장자와 보물 모두를 잃어 가했습니다.

그 밤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갖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 가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지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은 장자와 초대생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가했으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대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출 13:2).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신봉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밤에 성취된 완전한 승리로 인해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 앞에서 기만적으로 행동했던 바로도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환난은 건너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미"(출 12:30-32).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그 둘 사이는 현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오랜 포로생활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고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반면, 애굽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소망의 기반을 우상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밤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 곧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는 여호와요라'고 공포하셨나이다(출 12:12).

궁극적으로 여호와와 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 그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 죄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고전 5:7).

누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함을 받고 죄를 다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그분의 손과 발을 찢은 못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골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나타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와 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내셨으며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은 본문의 여호와와 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는 회개할 시간도 없고 또다른 기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며 한 주일을 지내실 때, 여호와와 밤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뻐하였듯이 새 언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



선교의 성경적 근거 8

바울서신은 선교의 샘

바울서신은 어떤 신학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장 실천적이고 또 선교적인 책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리의 백미로 알려지고 있는 로마서조차도 이신칭의뿐 아니라, 복음 전파와 복음을 통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책에서 자신은 "헬라인이거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빛된 자라"(롬 1:14)고 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롬 15:22-29).

소명과 선교의 메시지

바울서신은 선교의 핵심인 소명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비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의 청빙과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사실을 자세히 간증했습니다. 선교의 성패는 전략과 원리보다 소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가르치는 것 처럼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의 공적인 청빙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따라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고전 2:2).

선교의 동기와 목적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선교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려는 사명(고후 5:18)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고후 5:14). 바울서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주요한 목적은 죄인들의 회심과 교회의 설립이었고, 또한 세워진 교회를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지는 교회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서 자립 선교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은 교회를 세울 때, 경쟁의 식이나 직업의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다



김영대 선교사의 사역 모습

른 사람이 이미 기초를 놓은 곳을 피하는 겸손한 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후에는 양떼들을 성령과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장로들을 세운 후 과감히 미개척지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준비의 원리

바울서신에서는 선교의 방법과 전략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헬라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 국제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도시 다스는 세계의 교통로였으며 당시 국제어인 헬라 코이네 방언은 그의 모국어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의 사상과 이교의 사상에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후 조치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교회가 주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임을 알았지만 교회

는 사람을 도구로 하여 자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시켜 교회들을 제방문하게 했고, 서신을 교류하며 양떼들을 돌보는 자들을 임명했고, 또한 전도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건전할 교리와 바른 생활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설립한 교회들을 제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세계선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교회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아울러 이미 세워진 이런 교회들을 참 교회가 되도록 양육하면서 원주민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선교전략은 지금도 잘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제공)

또 다른 만남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편지가 오고 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 읽으며 떠난 이들에 대한 아가리로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영어로 써야 하는 답장 때문에 걱정이지만 그래도 즐겁기만 하다. "집사님, 충현교회에 너무 그리워요. 말씀을 배우며 찬양도 부르고... 수련회도 생각하고 성만찬도 생각하고... 이곳에서도 매일 기도하며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로 답장을 써야 하나...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어야 할텐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진짜입니다"로 첫 줄을 시작해야겠다.

(선교위원회 간사 심진경)

메이징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켄 헤임 (집사, 외국인근로자 사역부)

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환송하러 나가는 발걸음은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오전 11시 20분 비행기겠지...'

8시쯤 남편과 아이들 내보내기가 무섭게 공항을 향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주일마다 4시간 정도 함께 했을 뿐인데...'

아직은 경험이 없어 짧은 모르지만 장성한 아들들 집 떠나 군대 보내는 심정이 아마 이렇게 애틋하게 싶다. 좀 더 잘해 줄걸 하는 마음과 함께 한 1년 반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주여!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지켜주소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어느덧 공항에 도착, 약속 장소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면 어느 때와 같은 미소로 "야유 보란"(스리랑카어로 안녕하세라는 뜻)

하지만 목사님이 힘이 없다. 짐과 더불어 복잡한 수속을 마치고 나서 커피한 잔과 선물, 기념촬영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눈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꼭 교회에 나가고 신앙 생활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요." 걱정 말라며 밝은 미소로 대답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한다. "하나님, 아시지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셔서 믿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어느덧 탑승 시간이 다가온다. 다들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들은, 우리 위해 철면, 자매들은 합창게, 고국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닫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는 소망으로 나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알림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월)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 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차남 이석현 전도사를 위하여

화) 수리남 안석열 선교사

- 세례받은 8명의 인도인들을 위하여

수) 수단 김영대 선교사

- 수단 복음전도대를 위하여

목)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 목사이 부부의례 초대종교교실 중축을 위하여

금)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하여

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